

글로벌 주식시장 변화와 전망

2022.1.27

나스닥, 3.4% 급등을 뒤로 하고 파월 의장 발언 후 상승 반납

서상영 sangyoung.seo@miraeeasset.com

미 증시 동향

- 미 증시는 FOMC를 앞두고 MS(+2.85%)가 실적 발표 후 큰 폭으로 강세를 보이자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로 상승 출발. 특히 브렌트유가 90달러 넘게 상승하기도 했으나, 국채 금리가 하락하는 등 안정을 보인 점도 우호적. 이런 가운데 연준이 FOMC를 통해 3월 금리인상을 시사 했으나 예상된 점을 감안 영향은 제한. 그러나 파월 의장이 매 회의 때마다 금리 인상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자 하락 전환하는 등 변화 확대. 다만 이제는 본격적인 실적 시즌에 주목할 것으로 예상돼 기대가 유입돼 보험권 혼조세로 마감(다우 -0.38%, 나스닥 +0.02%, S&P500 -0.15%, 러셀2000 -1.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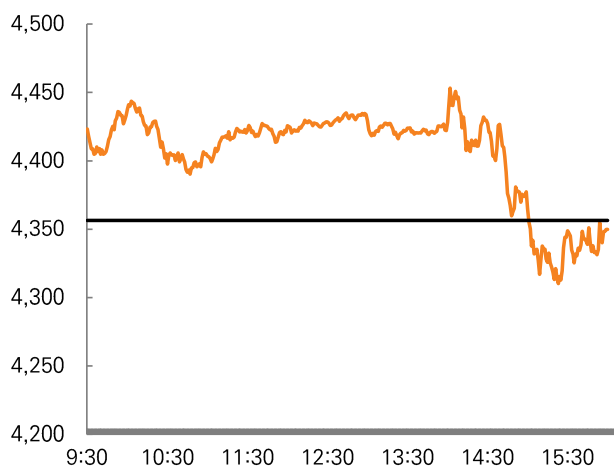
특이 종목

- MS(+2.85%)는 견고한 실적을 발표한 데 이어 클라우드 서비스 매출의 지속적인 성장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발표하자 상승. 테슬라(+2.07%)는 견고한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공급망 문제를 언급하자 가이던스에 대한 우려가 부각되며 시간 외로 2% 하락 중이며 인텔(+1.35%)도 견고한 실적 발표 불구 1% 하락 중. 미 의회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을 발표하자 마이크론(+1.55%), AMAT(+1.95%) 등이 강세를 보인 가운데 램리서치(+1.43%)는 매출 부진 여파로 시간 외로 9%대 급락.

한국 증시 전망

- MSCI 한국 지수 ETF는 1.29% MSCI 신흥 지수 ETF는 1.26%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203.11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4원 상승 출발 예상. Eurex KOSPI200 선물은 0.28% 하락. KOSPI는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
- 미 증시가 본격적인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 심리가 높아지며 상승한 점은 한국 증시에 우호적. 더불어 그동안 부진한 모습을 보여 왔던 반도체 업종이 정부의 지원책이 발표되며 강세를 보인 점도 긍정적. 이런 가운데 파월 의장이 매 회의때마다 금리를 인상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양적 긴축을 이전보다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고 주장한 점은 부담. 이는 외국인 수급에 부정적이기 때문. 이를 감안 한국 증시는 매파적인 연준에 대한 우려로 매물 출회 가능성을 높임. 다만, 최근 하락에 따른 저가 매수 기대 또한 배제할 수 없어 시장은 하락 출발 후 외국인 수급에 따라 변화 예상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Global Indices

지수등락률	Close	D-1(%)	지수등락률	Close	D-1(%)
KOSPI	2,709.24	-0.41	상해종합	3,455.67	+0.66
KOSDAQ	882.09	-0.83	홍콩항셍	24,289.90	+0.19
DOW	34,168.09	-0.38	베트남	1,481.58	+0.14
NASDAQ	13,542.12	+0.02	유로스톡스 50	4,164.60	+2.12
S&P 500	4,349.93	-0.15	영국	7,469.78	+1.33
캐나다	20,595.89	+0.02	독일	15,459.39	+2.22
일본	27,011.33	-0.44	프랑스	6,981.96	+2.11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변화 요인

①실적 시즌 기대 ②FOMC ③매파적인 파월 의장

MS(+2.85%)가 견고한 실적을 발표하고 상승.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발표 직후의 시장 흐름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전일 장 마감 후 시장 예상을 상회한 실적을 발표했으나, 시간외로 처음에는 큰 폭으로 하락했으나, 컨퍼런스콜에서 향후 전망에 대해 긍정적으로 발표하자 급 반등에 성공했기 때문. 이는 이번 실적 시즌을 바라보는 시장 참여자들의 성향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최근 넷플릭스 등이 양호한 실적을 발표 했음에도 펜데믹으로 인한 매출이 향후 경제 정상화 될 경우 둔화 될 수 있음을 시사하자 급락해 기술주 하락을 부추겼지만, MS 처럼 견고한 가이드نس를 발표할 경우 상승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추정

결국 이번 실적 시즌은 향후 실적 가이드نس가 어느때 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음. 팬데믹 이후 정상화 되는 과정이고, 4분기 S&P500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1.8% 증가로 시장참여자들은 추정하고 있으나, 1분기는 6.2%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 이러한 변화를 감안 이번 실적 시즌에서는 실적은 당연히 예상을 상회한 결과를 내놓아야 하며, 향후 전망치도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되어야 하는 어려움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음. 오늘 주식시장은 MS가 양호한 실적과 전망에 대해 긍정적인 발표를 하자 투자심리가 개선되며 기술주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 견인

한편, 미 연준은 FOMC를 통해 인플레이션이 2%를 훨씬 웃돌고 노동시장이 강하기 때문에 금리를 곧 올리는 것이 적절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3월 금리인상을 시사하는 성명서를 발표. 여기에 양적 긴축 관련 내용은 별도로 제시 했는데 금리를 인상하는 과정이 시작된 이후, 예측 가능한 방식을 통해 처리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며, 세부 사항을 조정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언급. 지난 2015년 말 금리인상 시작 후 2017년 양적 긴축을 단행했던 사례를 감안 시장 우려보다는 그 시점이 느낄 수 있을 수 있어 시장은 파월 연준의장의 기자회견에 더 주목

파월 연준의장은 인플레이션에 대해 “더 높은 인플레이션이 이제 더 광범위하게 퍼졌다” 라고 우려를 표명하며 기자회견을 시작. 여기에 ‘양적 긴축’은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축소 할 것이라고 언급. 그러나 정책의 방향을 자신있게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모든 회의에서 금리인상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 더불어 이전보다 양적긴축을 더 빠르게 단행할 수 있다고 언급했고 연준은 금융시장 보다 실물 경제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고 주장. CME의 FedWatch에 의하면 3월 25bp 금리인상 이후 5월에도 추가적인 금리인상 가능성이 있고 6월까지 3번의 금리인상 확률이 파월 발언으로 전일 44%에서 현재는 63%로 크게 증가

파월 의장의 발언 후 달러화의 강세폭이 확대됐으며, 미 10년물 국채 금리도 1.78%대에서 1.85%를 기록하는 등 상승폭이 확대. 그리고 한 때 3% 넘게 상승하던 나스닥이 하락 전환하는 등 변동성이 확대. 다만, FOMC 이후 이제는 본격적인 실적 시즌에 주목할 것으로 예상돼 주식시장에 대한 우려는 점차 완화 될 것으로 기대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시간 외 테슬라, 인텔 하락 중

MS(+2.85%)는 견고한 실적을 발표한 데 이어 클라우드 서비스 매출의 지속적인 성장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발표하자 상승. 이 소식으로 엔비디아(+2.01%)등이 강세를 보인 가운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애플(-0.04%), 알파벳(+1.81%), 아마존(-0.80%) 등 대형 기술주에도 장중에 강세를 보이기도 했으나, 파월 발언 후 매물 출회되며 상승 반납. 테슬라(+2.07%)는 견고한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공급망 문제를 언급하자 가이던스에 대한 우려가 부각되며 시간 외로 2%대 하락 중이며 인텔(+1.35%)도 견고한 실적 발표 불구 1% 하락 중. 미 의회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을 발표하자 마이크론(+1.55%), AMAT(+1.95%) 등이 강세를 보인 가운데 램리서치(+1.43%)는 매출 부진 여파로 시간 외로 9%대 급락.

텍사스인스트루먼트(+2.49%)도 견고한 실적 발표로 상승. 광학 부품 업체 코닝(+11.16%)은 양호한 실적 발표로 상승. 모더나(+1.59%)는 최근 하락에 따른 밸류 부담 완화를 이유로 투자 의견이 상향 조정되자 강세. 마텔(+4.33%)은 디즈니 겨울왕국 완구 판권을 하스브로(-6.06%)로부터 찾아오자 상승했으나, 하스브로는 하락. 반면, 보잉(-4.82%)은 예상보다 큰 폭의 손실을 발표하자 하락. 김벌리 클락(-3.43%)은 예상을 하회한 실적 발표로 하락. AT&T(-8.42%)는 예상을 상회한 실적 발표로 상승 출발 했으나, 어떠한 성장도 없었다는 점이 부각되자 매물 출회되며 하락.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 (XOP)	-1.30	대형 가치주 ETF (IVE)	-0.61
에너지섹터 ETF (OIH)	+0.43	중형 가치주 ETF (IWS)	-0.72
소매업체 ETF (XLY)	-0.48	소형 가치주 ETF (IWN)	-1.26
온라인소매 ETF (EBIZ)	-1.59	대형 성장주 ETF (VUG)	-0.12
금융섹터 ETF (XLF)	+0.26	중형 성장주 ETF (IWP)	-1.14
기술섹터 ETF (XLK)	+0.59	소형 성장주 ETF (IWO)	-1.61
소셜미디어 업체 ETF (SOCL)	-1.69	배당주 ETF (DVY)	-0.66
클라우드 ETF (CLOU)	-1.83	신흥국 고배당 ETF (DEM)	-0.31
미국 리츠 ETF (VNQ)	-1.56	신흥국 저변동성 ETF (EEMV)	-0.84
주택건설업체 ETF (XHB)	-2.37	미국 국채 ETF (IEF)	-0.71
바이오섹터 ETF (IBB)	-1.07	하이일드 ETF (JNK)	-0.34
헬스케어 ETF (XLV)	-0.52	물가연동채 ETF (TIP)	-0.63
곡물 ETF (DBA)	-0.15	미 투자등급회사채 ETF (LQD)	-0.68
반도체 ETF (SMH)	+1.44	모멘텀 ETF (MTUM)	+0.15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IT	2,672.96	+0.72	-4.50	-13.47
금융	641.59	+0.27	-1.68	-1.75
에너지	497.56	-0.17	+1.39	+16.46
경기소비재	1,401.35	-0.32	-5.88	-13.46
헬스케어	1,487.29	-0.44	-3.08	-9.20
필수소비재	775.02	-0.67	-2.84	-2.90
유틸리티	338.60	-0.71	-3.31	-5.80
커뮤니케이션	236.93	-0.79	-7.43	-12.66
산업재	845.14	-0.82	-3.39	-5.37
소재	518.23	-1.02	-5.66	-8.54
부동산	288.81	-1.66	-2.69	-10.02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한국 주식시장 전망

FOMC 결과를 감안 외국인 수급에 주목

MSCI 한국 지수 ETF는 1.29% MSCI 신흥 지수 ETF는 1.26%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개월 물은 1,203.11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4원 상승 출발 예상. Eurex KOSPI200 선물은 0.28% 하락. KOSPI는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

전일 한국 증시는 비록 미 증시가 부진한 모습을 보였으나, 우크라이나 문제가 외교적인 협상을 통해 완화 될 수 있다는 기대 심리가 유입되며 상승 출발. 더불어 실적 발표한 MS가 시간 외로 상승을 하자 실적시즌에 대한 기대가 유입된 점도 긍정적. 그러나 미국의 대 중국 견제 법안의 하원 통과 소식이 전해진 이후 매물 출회. 특히 LG에너지솔루션으로 인한 수급 불안도 겹치며 결국 하락 전환. 여기에 코스닥이 일부 기업의 개별적인 요인에 의해 변동성을 키우며 하락한 점도 특징

미 증시가 본격적인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 심리가 높아지며 상승한 점은 한국 증시에 우호적. 더불어 그동안 부진한 모습을 보여 왔던 반도체 업종이 정부의 지원책이 발표되며 강세를 보인 점도 긍정적. 이런 가운데 미 연준은 FOMC를 통해 시장 우려 보다는 덜 매파적인 내용을 발표한 점도 우호적이나, 파월 의장이 매 회의때마다 금리를 인상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양적 긴축을 이전보다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고 주장한 점은 부담. 이는 외국인 수급에 부정적이기 때문

한편, 테슬라가 견고한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공급망 문제가 향후 부담 요인이라고 주장하자 매물 출회되며 시간 외로 하락하는 등 가이던스에 대한 우려가 부각된 점도 부담. 이를 감안 한국 증시는 매파적인 연준에 대한 우려로 NDF 달러/원 환율이 1,203원을 넘어서는 등 원화 약세폭이 확대되는 등 전반적인 투자심리가 위축된 점을 감안 매물 출회 가능성을 높임. 다만, 최근 하락에 따른 저가 매수 기대 또한 배제할 수 없어 시장은 하락 출발 후 외국인 수급에 따라 변화 예상

주요 경제지표 결과

예상 상회한 미국 신규주택 매매 건수

1월 스테이츠 스트리트 투자자신뢰지수는 지난달 발표된 84.8보다 상승한 89.3으로 발표. 비록 기준선인 100을 하회하고 있으나, 기관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에서 위험자산이 증가했음을 보여줌. 유럽 지역이 지난달 85.3에서 103.5로 크게 상승했으나 북미 지역은 95.0에서 93.6으로 하락. 아시아 지역은 95.4에서 97.1로 개선

미국 12월 신규주택 매매 건수는 지난달 발표(72.5만 건)나 예상(76만 건)을 상회한 81.1만 건을 기록. 판매 중간 가격은 41만 6,110달러에서 37만 7,700달러로 하락해 인플레이션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가격 하락은 높은 인플레이션 우려를 일부 완화

”
상품 및
FX시장 동향
”

국제유가, 우크라이나 우려 지속 여파로 상승

국제유가는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가 여전히 이어지고 중동 지역의 분쟁 이슈가 지속되자 공급 감소 가능성이 제기되며 상승. 특히 브렌트유가 2014년 이후 처음으로 90달러를 상회했는데 미 국방부가 2월 중순에 러시아가 군사적인 대응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발표한 데 따른 것으로 추정. 여기에 오미크론으로 급증하고 있는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안정을 찾을 가능성이 높아지자 수요 증가 기대 또한 국제유가 상승 요인

달러화는 FOMC를 기다리며 여타 환율에 대해 강세를 보인 가운데 FOMC 이후 강세폭을 확대. 특히 파월 의장이 매 회의때마다 금리 인상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예상보다 더 매파적인 발언을 한 점이 강세폭 확대 요인. 러시아 루블화는 달러 대비 큰 폭으로 약세를 보이는 등 우크라이나 문제로 인한 제재 이슈가 이어진 모습. 여타 신흥국 환율도 달러 대비 약세폭이 확대

국채금리는 국제유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신규주택 판매 가격 및 밀 가격 하락 영향으로 높은 인플레이션 우려가 일부 완화되자 하락. 이런 가운데 FOMC에서 미 연준이 3월 금리인상을 시사한 데 이어 파월 연준 의장이 매 회의때마다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고 주장한 점, 양적 긴축 속도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자 상승폭을 확대해 나갔으며 10년물 기준 1.87%를 넘어서는 등 급등

금은 FOMC 회의를 앞두고 하락했으며, 시간 외로 매파적인 파월 의장의 발언 여파로 하락폭이 확대. 구리 및 비철금속은 국제유가 강세 영향으로 상승. 곡물은 밀이 우크라이나 문제가 외교적으로 완화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큰 폭으로 하락. 옥수수과 대두는 중서부 옥수수 작황지에서 재배 면적이 타이트하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상승.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1.05% 상승했으나, 철근은 0.58% 하락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87.35	+2.04	+1.81	Dollar Index	96.508	+0.58	+1.04
브렌트유	89.96	+2.00	+1.72	EUR/USD	1.1236	-0.58	-0.94
천연가스	4.22	+4.12	+4.69	USD/JPY	114.66	+0.68	+0.29
금	1,832.00	-1.24	-0.73	GBP/USD	1.3456	-0.33	-1.15
은	23.81	-0.37	-1.75	USD/CHF	0.9245	+0.71	+0.91
알루미늄	3,094.00	+0.06	+1.43	AUD/USD	0.7111	-0.56	-1.39
전기동	9,916.00	+1.17	+0.76	USD/CAD	1.2679	+0.40	+1.31
아연	3,610.00	+1.05	+0.80	RUB/USD	0.0126	-0.87	-4.04
옥수수	627.00	+1.13	+2.70	USD/BRL	5.4423	+0.02	-0.07
밀	795.00	-2.81	-0.19	USD/CNH	6.3371	+0.09	-0.22
대두	1,440.00	+2.33	+3.50	USD/KRW	1,197.70	-0.08	+0.50
커피	238.90	+0.42	-2.27	USD/KRW NDF1M	1,203.11	+0.47	+1.20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1.873	+10.38	+0.81	스페인	0.669	+2.30	-1.40
한국	2.562	-1.50	+3.20	포르투갈	0.596	+2.50	-1.30
일본	0.141	-0.10	-0.30	그리스	1.844	+20.50	+13.20
독일	-0.074	+0.60	-6.20	이탈리아	1.326	+3.80	-1.10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미래에셋증권이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